

우리들의 모습



예신 종강미사



예비신학생 기본교리

성사란 무엇일까?

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, 그것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. 가령 신호등의 빨간색은 정지하라는 상징이고, 연인에게 주는 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지요. 성사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표지입니다. 그래서 성사는 특별한 예식으로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만나시는 방법이에요. 이 성사로 신자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,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하지요.

성사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, 성사마다 예식도 다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, 성사에 필요한 물품도 다릅니다. 예를 들면 세례성사는 성수를 사용하고, 성체성사는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고, 혼인성사는 부부가 될 남녀가 반지를 준비하지요.

언어가 다르더라도 세상 어디든 같은 순서와 같은 내용의 기도문을 가지고 성사를 거행해요. 그렇게 모든 신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마음 한 몸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사입니다.

사제는 어떤 성사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성도 하고 축복도 해요. 예수님은 성사를 집전하는 권한을 사제에게 주셨지요. 주님께서 사제를 통해, 사제가 베푸는 성사를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

예신생 여러분,
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신부님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, 신자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!

영명축일 축하합니다!

- 1월 2일 그레고리오
대 신 학생 - 김정수 (송현동, 연구2)
- 1월 2일 바실리오
대 신 학생 - 김윤성 (주교좌 목성동, 학부2)
- 1월 28일 토마스 아퀴나스
예비신학생 - 김규민 (송현동, 중2)

2025년 1월

예비신학생 편지



< 2024년 예비신학생 종강미사 >



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

https://www.instagram.com/andongcatholic_
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

기억해요!

1. 2025년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

- 일 자 : 1월 21일(화) - 22일(수)
- 장 소 : 개운동성당 및 상주 가르멜 여자 수도원

예신생과 나누는 'Joungul'

- 소록도의 두 천사,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렛 수녀 -

전남 고흥군에 있는 '소록도'에서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펴 온 외국인 수녀님 두 명이 2005년 6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조용히 고국으로 떠났다.

두 수녀님은 1960년대에 소록도에 도착했다. 이분들은 장갑도 끼지 않고 약을 꼼꼼히 발라주고 상처를 만졌고, 죽과 과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.

사람들은 이 수녀님들을 '할매'라고 불렀다. 소록도 주민들은, "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수녀님의 천사 같은 웃음과 기도에 큰 희망을 얻었다."고 하면서 "두 분은 살아 계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대로였다."고 했다. 그렇게 해맑던 젊은 수녀님들은 이 환자들과 살아가는 사이에 어느덧 일흔 넘은 할머니가 되었다.

두 수녀님이 고국으로 떠나던 날, 그들 손에는 올 때가져왔던 낡은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한다. 누군가에게 알려져 소란스러워질까봐, "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"라는 제목의 편지 한 장만 남기고,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났다. 그 편지에서, "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,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해 드렸던 일을 이 편지로 용서를 빈다."고 적었다.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, "보답은 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했는데....."하며 눈시울을 붉혔다.

두 수녀님은 "네 이웃을 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"는 예수님의 말씀을 희생적인 삶으로 보여준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 되었다.

신학생으로부터~



찬미예수님!

예신생 친구들 안녕하세요! 2년이라는 군휴학을 마치고, 학부 3학년으로 복학 예정인 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. 어느덧 2024년도 다 지나고 새로운 해인 2025년이 왔어요! 새해에도

친구들 모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빌어요.

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! 무려 800km나 되는 엄청 긴 순례길을 30일 정도 걸어서 가는 여정이랍니다. 물론, 힘들 때도 많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,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.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걸어봐도 좋을 거 같아요.

순례길을 걷다보면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된답니다. 생김새도 다르고, 말도 다르고, 생활 방식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. 그런 사람들과 매일 같이 밥을 먹고, 순례길을 걷고, 함께 이야기 하곤 한답니다. 친구들이 상상하기엔 어떨 거 같나요? 답답하고 불편할 거 같나요? 하지만 여기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, 도와주고,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. 또, 힘든 여정에서 서로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답니다. 참 신기하죠?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, 처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곤 해요.

친구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모습인가요? 새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. 처음에는 나와는 다른 것들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, 하느님 안에서 이해하고 이야기 한다면, 틀림없이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!

그럼 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, 건강하게 또 만나요~

용상동 본당, 학부3
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

난 도 리 - 백종현 페르디난도



OHAY. 용기랑 나이지.
하늘의 주님께서 내일 그날대신에
이제는 기쁨을 주시길 기도. (태화기리)